

# 다도해의 보석 섬

13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대마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확한 미역을 도로변에 말리고 있다.



## 쪽빛 바다위 보물... 다도해 풍광 오롯이

참 멀다. '가도기도 천리, 먼 전라도길'이러는데, 진도 대마도(大馬島) 가는 길이 그랬다.

광주에서 출발, 서해안고속도로를 끝까지 달려 목포와 해남을 넘어서 2시간 넘게 가야 진도에 닿는다. 진도에 도착해서도 진도읍에서 40분쯤 더 들어가 팽목항에서 1시간30분가량 철부선(鐵浮船)을 타고 울망줄망한 섬 여럿을 넘어야 대마도에 닿는다.

그나마 하루에 겨우 한 번뜨는 인색한 배편인 탓에 '운때'가 잘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 멀리 있는 섬도 아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직선거리로 18.5km, 패속선을 타고 고작 15분이면 닿는 '앞바다'에 위치한 섬이다.

이런데도, 체감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지는 게 대마도 가는 길이다. 수십년간 터를 묻고 살아온 섬 주민들은 오죽했을까. 한 때 1700명이 넘게 살았던 마을이 80명 안팎으로 줄어든 이유도 어쩌면 당연한 듯 했다.

조도가 어미섬이라면, 대마도(2.52km)는 조도가 거느린 새끼섬이다. 바다 위에 섬들이 마치 '새떼' 처럼 내려앉았다고 해서 '새 조(鳥)'자에 '섬(島)'자를 쓰는 조도면에 속한 섬이다. 주민들은 섬의 형상이 큰 말 모양이어서, 조선시대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었다고 해 대마도로 불린다는 어원을 들려줬다.

선착장에 내려선 물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게 '해당화'가 피는 대마도리'라는 표지석. 하지만 해당화는 주민들의 기억속에서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선착장 건너편 해변과 선착장에서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가, 밭둑 어디에나 피어 있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화 뿌리가 당뇨병에 좋다는 게 알려진 뒤 물사람들에게 싹쓸이 당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섬의 '얼굴'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쉬운 일. 그래서인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 해당화를 얹혀 놓아야 하지 않냐며 해당화 살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데, 표지석만 덩그러니 놓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

섬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 해당화뿐만 아니다. 젊은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주민 수도 줄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84세대 167명이지만 실제 섬 주

1700명 넘는 주민 80여명으로 줄어

맑은 날엔 추자도·한라산이 한 눈에

때 묻지 않는 천혜의 관광지원 지천

민은 80명 안팎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은 3명이 전부다.

대마도리 대육마를 김현호(43) 이장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수가 300명이 넘고 1700명의 주민들이 살았다"고 했다. "봄·가을에는 작은 어선을 타고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고 겨울에는 미역과 툇 재배로 복직했다"고도 했다.

그렇게 잘나갔던 섬은 이제 '전설'로만 남아있다. 섬을 빠져 나가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젊은층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40%)이 섬을 지키고 있다.

경운기도 사용하기 힘든 밭은 휴경지로 바뀌었다. 마을에서 떨어진 언덕의 밭은 풀이 우거져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다. 그나마 남아있는 밭도 보리와 고구마, 밀 등에서 곡으로 대신 매워졌다.

속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섬사람들의 삶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주민들에게 속은 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데다, 상품가치도 높아 주민들의 용돈벌이로 손색이 없는 작물.

소를 끌고 '다랑치밭'까지 올라가 밭을 일굴 힘이 없는 노인들이 일손이 덜 가는 속 재배에 나선 것은 어쩌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인 듯했다. 1월 초부터 주민들이 수확하는 속은 정월 대보름 전후로 kg당 5천원까지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김 이장은 "겨울에도 춥지 않아 눈이 내려도 속이 사그라들지 않고 향기가 좋다"면서 "겨울에 눈으로 덮인 속으로 펼쳐진 마을 전경은 혼자보기 아까울 정도로 장관"이라고 말했다.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고운 백사장에 수심도 낮아 아는 사람들만 찾는 관광 명소다. 맑은 날이면 해변에서 인근의 병풍도를 비롯해 새떼처럼 내려앉은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울망줄망한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모든 게 변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공동 어장을 통해 끈끈하게 이어진 섬 주민들의 정이다. 섬 안 2개 마을의 이장을 중심으로 막내급인 40~50대 안팎의 섬 젊은이들은 나이든 주민들의 자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못 양식과 멸치 어장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연산 툇을 공동으로 재배해 생계에 보태고 있는 것이다. 대육마를 2구이 장 김진수(43)씨는 "자연산은 kg당 4300원에 팔리는데, 8월까지도 수확이 가능하다"면서 "툇과 미역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젊은이들이 맡고 별드는 날, 말리는 것은 어른신들을 비롯 주민 모두가 함께 한다"고 말했다.

섬 풍광도 예전과 다르다. 해무가 걷힌 날에는 섬에서 제주도 한라산이 보이고 인근의 병풍도, 동거차도·서거차도 등 새떼처럼 내려앉은 다도해상국립공원 내 섬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모래가 곱고 완만해 아는 이들만 찾는다. 해변이 3곳이나 되고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천혜의 어촌체험장도 관광지원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진도군에 섬을 가꾸는데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예메랄드빛 바다에 다도해상 점점이 흩뿌려진 섬을 눈 안에 담을 수 있는 섬,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핀 해변을 배경으로 한 섬 등 온갖 숨겨진 매력들이 다시 되살아나길 희망하고 있다.

고운 백사장을 갖춘 대마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한편, 샤워장을 비롯, 민박시설과 산책로를 설치하면 물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토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까지 또 얼마나 걸릴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합평엑스포공원

(상시개방운영 : 매일 9월트 ~ 11월말까지)

다비차 곤충 그리와 꾸르르 활명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학습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http://www.hapyeongexpo.com>    문의전화 : 0505-322-7009    (재)합평엑스포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